

유재원-유비호

선정 작품: 삼원소와 Headnfoot

한국 외국어대학교 그리스학과 유재원

<백남준과 비디오 아트>

백남준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1960년대는 당시 젊은 예술가들이 기존 체계의 권위와 상식을 부정하는 반체제 운동을 활발하게 벌이기 시작한 시기다. 이런 반항의 예술은 자유분방하고 기상천외한 젊은 예술가들의 생각을 무대나 다른 공간에서 거리낌없이 직접 보여주는 전위 예술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원래 시간 예술인 음악에서 출발했던 백남준에게 이런 파격적인 공간에서의 전위 행위는 공간에 대한 새로운 가망성으로 다가왔다. 이 시기의 작품에서 백남준은 폭력적이고 표현주의적인 행위 예술을 통해 충격을 줌으로써 기술의 빠른 기술의 발전으로 점점 더 기계에 의존하게 되는 현대인들의 불안과 고통을 표현했다.

그 당시 백남준은 가장 가난한 나라이자 자유가 억압 받고 있는 후진국 한국에서 온 젊은 황인종 예술가로서 가장 풍요로운 백인들의 사회인 독일과 미국에서 활동했기에 모든 면에서 경계에 놓인 존재였다. 그런 까닭에 그는 모든 경계를 깨려는 시도를 반복했다. 백남준은 동양과 서양, 인간과 비인간, 주체와 객체, 고급 문화와 저급 문화, 문명과 자연, 기술과 인간, 예술과 비예술을 대립되는 관계로 보지 않았다. 그러기에 그는 전통 서양 미술의 상징들을 아시아적 가치를 무기 삼아 침범하여 부수는 반란자, 즉 문화 테러리스트임을 자처했다. 이것이 바로 백남준 자신이 자신을 스스로 '황색 재앙'이라고 표명한 이유다. 이런 백남준의 경계 허물기 시도는 '굿모닝 미스터 오웰(1984년)'이란 작품에서 위성 연결을 통한 동서양 문화의 융합과 원격 현존의 구현으로 이어졌다.

백남준이 그런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하던 시기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새로운 기술이 발달하던 시기였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새로운 매체인 텔레비전이 각 가정에 보급되었고, 전화와 자동차의 보급은 인류의 삶의 속도를 그 이전의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시켰다. 이제 인류는 이전보다 훨씬 확장된 시간과 공간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이미 20세기 초에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의 두 차원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의 차원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물리학적으로 증명한 바 있다. 그러나 상대성원리는 일반인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론이다. 백남준은 이 상대성원리를 새로운 예술 형식인 비디오 아트를 통해 구현하여 일반인들에게 보여 주는 작업을 했다.

때마침 1960년대 이후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텔레비전을 비롯한 기술의 산물들이 사회를 장악하며 예술의 매체로 등장하자, 과학의 힘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백남준은 이 텔레비전을 예술과 기술의 결합을 위한, 그리고 인간과 기계를 하나의 앙상블로 만드는 "기술의 인간화"를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창조적 매개체로 사용했다. 더욱이 당시 막 시작되던 컴퓨터 기술의 발달은 프로그래밍을 통한 간단한 조작으로 다양한 영상을 자유로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주었다. 이때부터 백남준은 시간예술인 음악과 공간 예술인 미술의 경계를 허물어 하나의 종합 예술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비디오 아트를 시작한다. 백남준은 이 작업에서 일반인 시청자들처럼 다이얼을 비롯한 텔레비전의 외부에 붙어 있는 조절기를 조작하는 대신 텔레비전의 내부로 들어가 회로와 진공관을 조작하여 이 새로운 문명의 이기를 예술가의 창조 도구로 만들었다. 이런 의미에서 텔레비전을 매개체로 한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는 기술과 자연, 기술과 예술, 기술과 종교의 대립을 없애고 이질적인 요소를 조정하여 새로운 형태로 변환한 발명품이었다.

백남준 본인 스스로가 항상 말했듯이 예술가란 장난꾸러기이자 일종의 사기꾼이다. 그는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자신이 상상한 모든 일을 장난끼 어리게 구현했다. 그러나 그가 비디오 아트로 표현한 것들은 겉보기와는 달리 진지하고 속 깊은 새로운 예술 세계였다. 그는 시공간을 하나로 연결하면서 음악의 특성인 싱크로나이즘을 파괴하는가 하면, Headfoot 같은 작품에서는 영상의 속도를 빠르게 하여 한 인간의 표정과 발 놀림, 그리고 일상적인 대화의 목소리가 고속에서 어떻게 변형되고 낯설어지는가를 보여 준다. 상대성원리에 따르면 속도가 빨라지면 시간의 흐름은 느려지는 반면 공간은 한없이 좁아지고 반대로 속도가 느려지면 시간은 빨라지고 공간이 무한대로 확장된다. 백남준은 이런 원리를 그의 작품 곳곳에서 활용하여 우리가 평소에 친숙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낯설게 하기에 성공한다. 또 빛을 왜곡하여 인간의 눈이 아니라 다른 생명체나 외계인이 사물을 보는 듯한 영상을 만드는데 하면, 물체와 에너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첨단 현대 물리학의 양자 역학 원리를 예술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때로 white noise(화질을 흐리게 하기)라는 기법을 이용한다. 비디오 편집을 통해 공간을 접어서 시간을 왜곡하여 차원 변경을 시도하는가 하면, 텔레비전 화면의 상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기도 하고, 옥타브라는 형식으로 정해진 음들 이외에 주변의 모든 비정형의 소리가 음악이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피아노와 소음이나 인간의 절규에 가까운 고향이나 비명을 섞어 넣기도 한다.

<백남준 '삼원소'의 의미>

백남준의 이런 시도들은 선(禪)의 세계에서 경험하는 돈오(頓悟)를 표현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는 고정된 정형(定形)의 형태보다는 순간적인 변화를 보여 주는 것이 기 예술가가 추구해야 하는 진정한 목표라고 제시한다. 백남준은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을 바탕으로 한 뉴턴의 물리학을 뛰어넘어 시간과 공간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차원의 문제라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이나 물질과 에너지가 불연속 속에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넘나드는 것이라는 닐스 보어의 양자 물리학의 기본적인 개념이 도교나 불교의 사상 속에 이미 있었음을 표현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이런 백남준의 예술관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작품이 '삼원소'라고 생각한다. 제이미 앨런의 말대로 "가장 넓은 의미에서 우리 인간의 프로젝트란 본질적으로 테크놀로지와 관련"되는데, <삼원소>는 "백남준이 자주 나란히 거론했던 두 가지 관심사, 즉 테크놀로지와 예술이라는 서로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는 두 역사의 결과를 간단명료하게 전달"하는 작품이다.¹

이 작품의 세 요소인 원, 사각형, 삼각형은 동서양 모두에서 자연과 우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상징하는 것들이다. 인류는 태곳적부터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하늘에 이르는 길인 산이나 하늘을 향해 치솟는 불꽃과 나무들은 삼각형을 이루기에 삼각형은 하늘에 이르는 길, 즉 하늘과 땅의 소통으로 보았다. 그리고 소통의 주체는 인간이기에 삼각형은 인간을 상징한다. 이와 같이 삼원소는 천지인(天地人)을 상징하는 것이다. 원, 사각형, 삼각형의 이런 도상학적 상징은 유교의 사당 대문에 흔히 '천지인'을 상징하는 삼색 태극 문양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일본인들 역시 땅은 네모나고, 불은 세모이고, 물은 둥글게 되려 한다고 생각한다. 또 그들의 종교 신도(神道)에서는 사각형은 해, 원은 달, 삼각형은 별을 상징한다.

그리스도교에서도 이 삼원소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상징으로 쓰이고 있다. 인간이 만든 건축물 가운데 최고의 명작들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이스탄불의 '하기아 소피아 성당'은 땅을 상징하는 네모난 건축물 위에 하늘을 상징하는 둥근 돔을 올려 놓는 데 성공한 최초의 건물로 유명하다. 모든 성당 안에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성 삼위, 즉 삼각형을 모신다. 또 피라미드는 삼각형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을 이루는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 사각형을 쌓아 올린 것이다. 피라미드 역시 하늘에 이르는 길, 즉 신과의 소통을 상징한다.

백남준 역시 '원(동그라미): 天 - 하늘 - 氣의 흐름 - 정보적 역동성', 방(네모꼴): 기의 길 - 총체적 관계장, 각(세모꼴): 주체화 과정'이란 메모를 남긴 바 있다.

이와 같이 우주에 존재하는 삼라만상은 모두 원, 사각형, 삼각형의 삼원소로 환원될 수 있다. 여기에서부터 인간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형태는 궁극적으로 삼각뿔과 공, 직각 육면체로 분해될 수 있다는 입체파 주장이 나온다. 바로 이 원리에 따라 세 개의 조형물을 설치하고 그 안에 레이저로

빛을 높게 하여 무한하게 변하는 세계를 표현한 <삼원소>는 백남준의 가장 원숙한 시기의 예술 세계의 대단원을 장식하는 작품으로 손색이 없다. 이런 까닭으로 우리는 이번 전시회의 대상으로 이 작품을 선택했다.

<작가 유비호>

작가 유비호는 평소에 예술이란 아름다움이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 각자가 자신의 삶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어느 특정 순간에 갑자기 발견하는 것, 달리 말하면 시간을 벗어난 공간에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경험 속에서 매 순간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미의 상대성과 돈오적 경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작가다. 그는 혼돈에서 시작된 우주가 가이아와 에로스를 거쳐 질서 잡힌 세계로 나아가고, 두 개의 어두움인 닉스와 에레보스에서 빛이 생겨난다는 천지창조 신화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은 작품을 추구하고 있다. 그의 이런 예술 철학은 백남준의 삼원소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백남준의 삼원소와 유비호의 상호 침투: 접힌 공간을 가로지르는 시간 여행>

유비호는 위에서 설명한 도상학적 해석을 바탕으로 백남준 작품 <삼원소>의 공은 우주와 자연을, 직육면체는 인간이 만든 공간을, 삼각뿔은 우주와 인공물을 연결하는 원리(로고스)를 상징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를 다시 시간적으로 풀어, 피라미드를 연상하게 하는 삼각뿔은 과거를, 현대 건축물을 떠올리게 하는 직육면체는 현재를, 우주로 무한히 뻗어나가는 어두운 하늘을 닮은 공은 미래, 또는 영원성을 표현한다고 본다.

삼각형 안에는 한 남자가 걷는 뒷모습과 기어가는 개미, 그리고 한없는 우주로 사라져 가는 우주선 보이저호가 보인다. 개미는 높이라는 차원이 없는 이차원적 존재다. 이차원에는 시간이란 개념이 없다. 그리고 너무 가벼워 중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한없이 숲길을 걸어 가는 남자에게 삶이란 무엇일까? 단순하고 무미건조하게 계속되는 여정에서 남는 것은 무엇일까? 한없이 멀어져 가는 우주선은 시간을 너머 여행한다. 인간의 잠재 의식 세계는 우주선이 탐험하는 미지의 세계와 닮았다. 끝도 없고 어둡고 고요하고 외롭다.

사각형에는 빛이 있다. 거울 조각에 반사된 햇빛이든 자동차 헤드라이트에서 나오는 인공 빛이든 빛은 직진한다. 사각형 건물들의 선들도 직진한다. 빛은 어디로든 반사되어 도약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심전심을 상징할 수 있다. 그리고 빛의 번쩍임은 찰라적이다. 돈오의 순간의 번쩍임은 번개를 닮았다. 빛이 있는 현실계 역시 에레보스처럼 어두운 잠재 의식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부조리로 가득하여 알 길이 없다. 다만 우리의 생각들만이 거울에 반사되는 빛처럼 우주 어디로든 도약할 수 있을 뿐이다.

자연을 상징하는 원에는 물이 흐른다. 덧없음과 영원한 반복을 나타내는 데에 흐르는 물보다 더 적당한 것이 있을까? 물에 충격이 가해지면 동그란 파문이 인다. 파문은 눈에 보이는 에너지다. 그리고 파문은 이내 사라지고 수면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평정과 고요를 되찾는다.

삼각형과 사각형, 그리고 원은 따로따로 있으면서 동시에 우주를 관통하는 에로스의 친화력과 생명체와 무생명체가 만들어 내는 파장을 통해 상호침투한다. 현존계와 상상계, 그리고 상징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여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이런 것이 삼원소의 세계인 것이다.

¹ 2011년, 백남준의 속도로 여행하기, NJP Reader 2호, 174쪽.